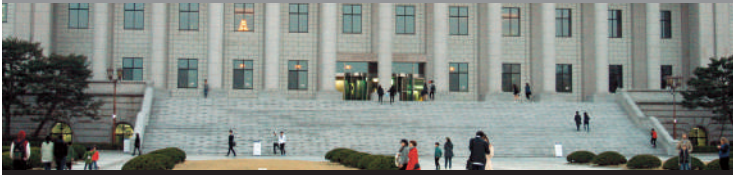


3》해정박물관장 폭언으로 노조와 성명전



6》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③ 연구지원 제도



2014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및 부전공 신청 안내

접수기간 : 4월 13일(월)~4월 17일(금)
접수장소 : 서울캠퍼스-소속대학 행정실(조기졸업),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부전공)
국제캠퍼스-중앙도서관 1층 학사지원과(조기졸업),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부전공)
신청대상 : 2014학년도 후기 졸업 가능자(2015년 8월) 졸업 가능자
제출서류 : 신청서, 성적증명서 1부, 추천서(조기졸업자에 한함)



‘본관놀이’의 모든 것

서울캠퍼스 본관 주변의 벚꽃이 모두 개화하면서, 야유(野遊)를 즐기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 소위 ‘본관놀이’라 불리는 이 풍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관련기사 8면>

“우리학교와 부조화” ... “적응할 시간 필요”

정문 앞 노란색 건물 갑론을박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서울】정문 옆 녹지공간을 활용해 건설 중인 ‘전면플라자 문화복지시설(문화복지시설)’(가칭)을 두고 구성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0%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온전한 색을 입힌 외형이 드러나면서 구성원의 평가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주 우리신문이 인터넷으로 전한 문화복지시설 기사를 본 구성원들도 댓글의 형태로 속속 의견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건물의 형태와 외벽의 색을 두고 가장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애초에 우리신문이 기사를 전하기 전까지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건물 용도가 무엇인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대학측이 홈페이지 포커스 기

정문 앞 건물을 보는 의견들

Good : 성냥갑 같은 건물 외형을 탈피한 모습이 신선

Good : 회색빛 일색이었던 캠퍼스 전경에 포인트가 되는 색

Bad : 지나치게 밝아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Bad : 우리학교 특유의 건물양식과 어울리지 않는다

Bad : 건물 외벽이 심하게 튀다

사를 통해 작년부터 문화복지시설 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우리신문 역시 관련 기사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성원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신문 등을 통해 건물의 쓰임새가 알려진 뒤부터는 건축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구성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우리 학교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독특한 외형과 ‘파격’이라고 할 만큼 강

렬한 칼라에 집중되고 있다. 구성원에 따라서는 ‘성냥갑 같은 건물 외형을 탈피한 모습이 신선’하다거나

‘회색빛 일색이었던 캠퍼스 전경에 포인트가 되는 색’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내리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좀더 많은 의견은 ‘너무 튀다’로 수렴된다.

대부분의 의견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지나치게 밝다”, “우리 학교 특유의 건물양식과 어울리지

않다”는 ‘부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차라리 건물 외벽을 유리로 처리했다면 심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외관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국제캠퍼스는 공과대학관이 너무 고풍스럽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서울캠퍼스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이 너무 현대적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흥미롭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주는 구성원도 있었다.

구성원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 이 건물의 설계자인 이현호(홍익대, 건축학) 교수는 “파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수 십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캠퍼스 풍경과 다른 건축물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5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개발한
김호철 교수 연구팀



“키 작은 어린이들에게 도움 되길”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 최근 뉴스와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일명 ‘키 크는 신물질’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우리학교 한의과대학 김호철(본초학)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써 최초 인정받았다. 키 크는 신물질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호철 교수와 그 연구팀을 만나봤다.

4년 정도 섭취할 경우

4~5cm 더 클 것으로 기대

김호철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이렇게까지 파급효과가 클 줄 몰랐다”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는 상태”라고 말했다. HT042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없기 때문이다.

HT042는 성장호르몬 분비량을 늘려, 성장을 돕는 물질이다. 때문에 성장판이 이미 닫힌 성인에게는 효과가 없지만,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성장호르몬 주사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철 교수 연구팀이 어린이 97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3개월간 이 물질을 섭취한 실험군이 2.25cm 자라 그렇지 않은 실험군보다 평균 3.3mm 더 자랐다. 약 17.2% 더 성장한 것이다. 연구팀 이동현 연구원은 “섭취하지 않은 어린이 대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추가 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정도 섭취할 경우 키가 4~5cm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효과는 기존에 있던 성장호르몬 주사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성장호르몬 주사는 고가이고 환자에

사를 맞아야 해서 어린이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면에 HT042는 안전한 천연물로 적정섭취량을 넘어서도 부작용이 없을 만큼 ‘안전한’ 물질인 것도 확인됐다. 독성시험에서 흰 쥐에게 적정섭취량의 13배까지 먹었지만 문제가 없었다.

놀라운 성과지만, 개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이후 15년 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한 끝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몸에 좋다는 100여 종 이상의 각종 약재를 모두 실험해보았다”며 “수많은 실험 결과, 키 크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오랜 기간 연구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실험대상이었던 흰 쥐의 경우 작은 스트레스에도 ‘성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만큼, 작은 환경까지도 점검해야 했다. 김영식 연구원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약을 먹이고, 외부요인을 차단해도 데이터를 확실히 도출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식 중이나 설날, 추석 가릴 것 없이 실험실을 향해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학교 내의 연구 공간도 부족했다. 다양한 약재를 실험해야 했던 만큼, 저장공간이 필요했지만 한의과대학 여건상 마땅치 않았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팀은 연구를 이어나갔고, 지난 7일 HT042를 토대로 한 성장식품까지 출시됐다.

앞으로 김 교수와 연구팀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과제 제신장 어린이를 위한 신약 개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교수는 “최근 키가 자신감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HT042를 통해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사랑의 광장’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㉑

오택호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15년 4월은 잔인한 봄이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광화문 광장의 노란색 물결’이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수몰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정상화된 것이 없다. ‘세월호의 광장’ 앞에서 정상적인 부채감에 젖은 국민들은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날씨에도 불현듯 저절



‘광장’=대중의 밀실, ‘밀실’=개인의 광장’이라는 등식을 정립한다.

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참담한 고통의 눈물을 수시로 떨군다. 피어나지 못한 채 수몰된 영혼들이 여전히 구전을 떠돌고 있기 때문이

다.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은 오늘날도 노란 산수유와 개나리로, 붉은 진달래와 철쭉으로, 하얀 벚꽃과 목련으로 한반도의 곳곳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슬픈 봄이다.

‘광장’과 ‘밀실’과 ‘사랑’이라는 열쇠는 기실 1960년산이다. 55년 전 최인훈의 《광장》(1960)에서 그 표현들이 이미 분단의 질곡 너머를 상상하며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한반도의 문제를 상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새벽》지에 《광장》 원고를 게재하면서 “빛나는 사

월이 가져온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자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광장’이 “운명을 만나는 자리”라고 재정의한다. 1960년 4.19 혁명이 열어놓은 ‘자유와 평등’의 해방감이 24세의 젊은 작가에게 ‘민주공화국의 보람’을 만끽하며, 운명처럼 《광장》이라는 기념비적 걸작을 탄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61년판 서문에서 작가는 인간이 광장과 밀실을 함께 호흡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광장=대중의 밀실’, ‘밀실=개인의 광장’이라는 등식을 정립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플랫폼(Platform)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 7면



시선

사설

나는 ‘특별하다’는 인식
구성원 반발만 가져올 뿐

-해정박물관 폭언 논란을 보며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 ‘community’의 어원은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한다. 이 ‘communis’는 ‘공동의’라는 의미를 갖는 ‘com’과 ‘의무·직무·부분을 다하는’을 뜻하는 ‘munis’의 합성어다. 이를 토대로 ‘community’의 의의를 풀어 해석해보자면 ‘사람들이 저마다의 직무를 다하며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학공동체 역시 제 구성원이 저마다의 직무를 다하고 본분을 잘 지킬 때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의 대전제이자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최근 해정박물관과 노동조합, 그리고 감사행정원이 관련되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 아쉬움이 읽히는 대목은 이 지점에 닿아있다. 해당 사건은 감사행정원의 정기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청을 해정박물관이 거부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해정박물관 측이 밝힌 거부 사유는 크게 ‘부총장 결재완료’와 ‘인력의 미비’ 등이었다. 그런데 이 ‘거부’가 이후의 사건 경과(經過)를 불러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차적으로 대학공동체 내에서 감사행정원의 직무가 지니는 특별성에 기인한다. 감사행정원은 대학 내의 모든 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교유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때문에 감사행정원은 누구의 위험도 받지 않고 정당하게 감사활동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 기능이 마비된다면 결국 공동체 조직은 무너져내릴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감사행정원이 그 권한 하에서 접근 가능한 범위는 총장이나 설립자의 결재완료 문서를 포함하는 ‘학내의 모든 자료’이다. ‘부총장 결재 여부’가 감사의 대상 여부를 가리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물론 해정박물관 측이 밝힌 ‘인력의 미비’라는 사유는 많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배경과 사실이 깃들어 있든, 대학구성원인 해정박물관 측이 감사 시스템이라는 학내 행정 프로세스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는 많은 논란을 동반할 수 있다. 만일 해정박물관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합당한 경로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건’이라는 것이 학내 질서에 대한 반발의 이유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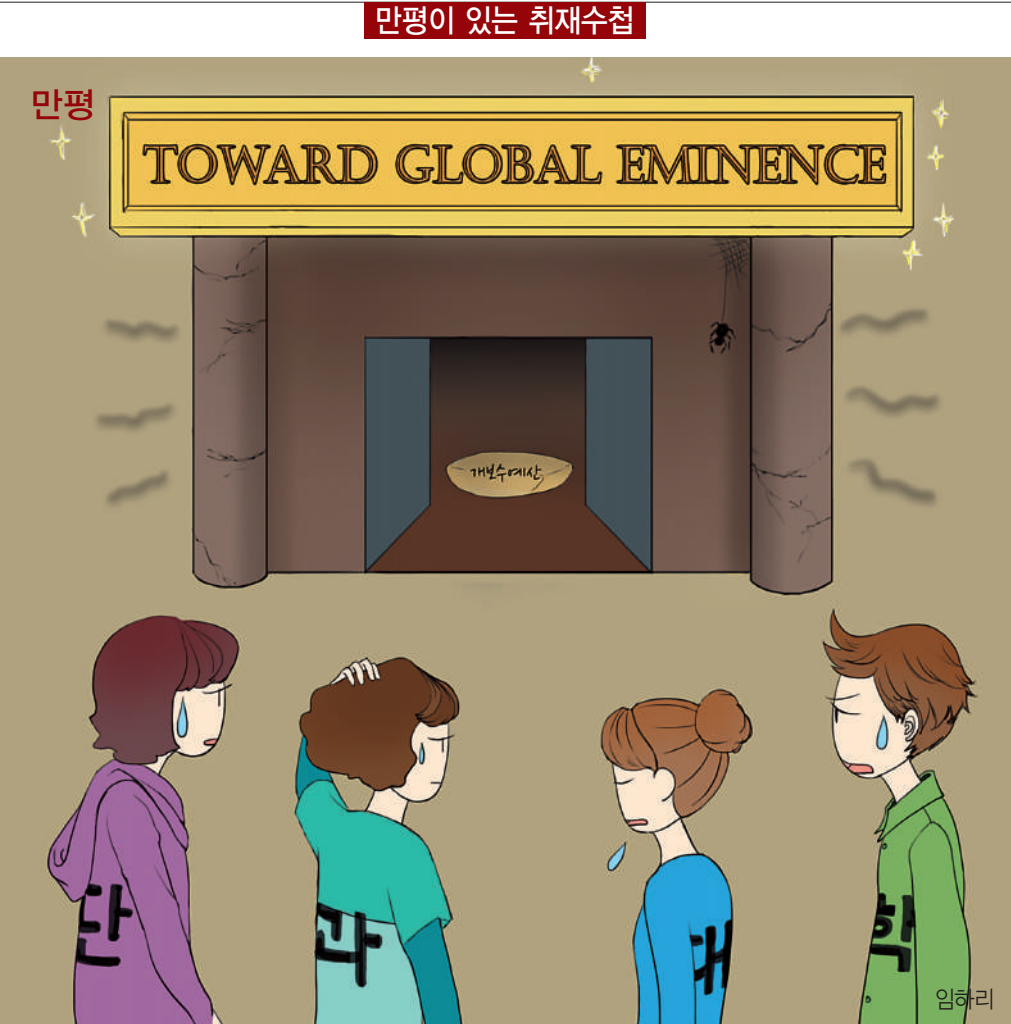
대학의 이름 아래 모인 모든 그룹과 조직은 대학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구성원 각각의 역할과 책임과 직무가 모여 곧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기에 모든 제 구성원은 저마다 소중하고 특별하다. 그리고 그 ‘소중함’과 ‘특별함’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조율하는 것은 결국 학내 규정이며 행정프로세스이다. 이 명제 덕분에 어떤 구성원이든, 심지어 한 대학의 설립자조차 초법적인 지위 아래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유화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책적인 추대가 행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변하는 김해정 관장의 말은 결코 ‘우선될 수 없다’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지난 8일 본교에서 초청 강연

미디어 여론동향 2015. 3. 30 ~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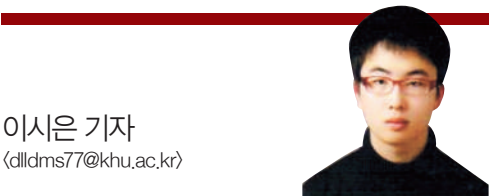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국제】마을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의 프리마켓(Free market) 행사가 9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정문 옆 카페 ‘Breeze’에서 열렸다. (“마을상권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대학주보 온라인, 2015.4.7) 우리학교 학생들이 7개 팀으로 나뉘어 의류, 악세사리 등을 판매했고,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들과 노래동아리 ‘알피움’의 공연도 이어졌다. 이번 프리마켓은 상가변영회와 같은 별다른 조직도 없는 마을 상권에 활력을 찾고자, 카페 ‘Breeze’ 운영자 김상연 씨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마을상권을 살려보려는 생각에 프리마켓 행사를 기획했다”며 “프리마켓을 통해



이 주의 주제 - 낙후시설과 예산편성 논란

물세는 천장·갈라진 벽, 그 정도는 해결해야 한다



지난달 불거진 정경대학의 낙후시설, 노후기자재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전수조사해 예상되는 소요예산까지 책정했기에 더 심각하게 다가왔다. 결국 지난 2일 부총장과 학장, 학생대표 면담에서, 학교 측이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게 됐다. 정경대학 학생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결과였다.

정경대학 학생들이 성과를 거두자, 당장 그동안 동일한 문제로 고민이 많던 각 단과대학들이 같은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실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은 정경대학보다 오래됐고, 공과대학이나 외국어대학 역시 1980년대 건축된 이래 내·외벽 보수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의 공간문제 역시 오랜 논란거리고, 지난해 우리 신문에서 제기한 것처럼 전자정보대학과 응용과학대학은 더부살이 중이다. 고민이 없는 단과대학을 찾기가 더 힘들다.

그동안 개·보수 문제는 단과대학에서 민원사항을 모아, 관리팀과 기획예산팀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매겨 해결해왔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시급한 문제는 바로 조치가 이뤄졌지만, 그 밖의 문제는 저율질을

한창 해야 했다. 예컨대 SPACE21사업 등이 예정된 단과대학은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는 식이었다. 합리적인 우선순위 책정과정을 통해 개·보수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하지만, 불만은 쌓여갔다. “건물이 눈에 보기에도 노후화됐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악취가 풍기는 데도 바뀌지 않는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각 단과대학의 자율운영예산에 맡기던 개·보수 문제를 대학본부에서 총괄하게 됐다.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정해져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 측은 “학생들이 보는 문제점과 전문가가 보는 문제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문가가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불편사항’은 당연히 이해 당사자인 학생, 교수 등 그 공간을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각 단과대학에서 ‘밀접하게’ 들을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대학본부가 ‘나서서’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힘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학본부는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불편사항을 예산효율 등을 근거로 인내해달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대학의 기본인 교육여건 문제가 이런 상황에 몰려가기 전에 물세는 천장, 갈라진 벽 정도는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시험기간’(#경희숲_7946, 2015.4.6)에 관한 내용의 글이 인기가 높았다. 이 글은 255개의 ‘좋아요’와 8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글쓴이는 “진짜 시험기간 인가 보다. 화장실 청소도 재밌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재밌다”며 “빨래를 널어놓고 대나무숲을 하고 있다”고 공부빼고 모두 재밌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대나무숲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다가온다”, “씻는 것도 꼼꼼하게 화장품 바르는 것도 꼼꼼하게 하는 시기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지난 8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추귀홍 중화인민공화국 주 대한민국대사를 초청, ‘전면적 발전관계에 들어선 한중 양국의 새 시대’란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경희대 주한 중국대사 초청 특강/경인일보,2015.4.9) 내빈,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추귀홍 대사는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0여 년 동안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중FTA가 발효되면 교류가 한층 증대해 양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사람도
생각하는 ‘배려’를 갖자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던 꽃샘추위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새 캠퍼스는 완연한 봄기운으로 가득하다. 화창한 봄 날씨와 함께 어우러지는 벚꽃 풍경은 올해도 학생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본관으로 향하게 한다. 많은 학생들이 본관에 돛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도 나눠먹고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 올해도 어김없이 ‘본관놀이’의 시기가 도래했다.

본관놀이가 한창인 지금 이 순간에도, 낭만적인 풍경 너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양 있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대학생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벚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광경뿐만 아니라 그 이면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 걸음한 공간에서 즐겁게 본관놀이를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버려둔 쓰레기를 뒷정리 해주는 청소노동자 덕분이다. 본관 주변을 둘러싼 예쁜 풍경의 뒤편에는 본관 내에서 업무를 보는 교직원과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잔디밭에 앉아 배달음식을 즐기는 낭만 뒤에는 급격하게 늘어난 유동인구와 그 틈을 비집고 다니는 배달부의 오토바이, 그리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관리하는 안전요원의 수고가 있다. 그렇게, 우리의 본관놀이 뒤에 ‘생활’이 자리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벚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광경
뿐만 아니라 그 이면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본관놀이의 그림자들, 즉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나 과도한 소음문제,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 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거의 본관놀이가 시작되면서부터 함께 제기된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한건 거의 없다. 그것은 ‘벚꽃이 만개한 본관 앞마당’이라는 분위기에 취해 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인식 문제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겐 ‘한 철 이벤트’인 본관놀이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한 번쯤은 ‘자유’에 앞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공동체적 책임감’에 대해 자성해보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작 이 공간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분들은 ‘우리의 한 철’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지난 8일, 관리팀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의 본관 분수대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관 진입로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본관놀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작은 배려의 마음을 갖자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모일 때, ‘캠퍼스보다 아름다운’ 경희인의 모습으로 채워질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대학 정기감사 중 서류 제출 요구 - 거부가 사건 배경

〈감사행정원〉 〈혜정박물관〉

혜정박물관 폭언 → 노조 성명서 → 박물관 반박성명 이어져

논란 가운데 선 혜정박물관

이승연 leesy0317@khu.ac.kr
최승욱 dotori14@khu.ac.kr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의 ‘폭언’ 논란이 노동조합과 혜정박물관의 3번에 걸친 성명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폭언의 ‘피해자’이자 ‘원인’이기도 했던 감사행정원 측은 혜정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 결말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관장의 폭언 사실이 대학 구성원에 알려진 것은 지난 3월 27일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통해서다. 노동조합은 이메일과 대자보를 통해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이 3월 24일 국제캠퍼스 감사행정원을 찾아가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했으며 ▲김 관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만나 사과할 것 ▲학교 당국은 김 관장에 대해 징계 조치 할 것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다음 노사협의회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직원 상대 폭언 사과해라 박물관, 노조가 관장 명예 실추시켜

혜정박물관 측도 반박 성명서를 냈다. 혜정박물관 직원들은 지난 3월 28일 이메일을 통해 반박 성명서를 내고 노조가 박물관 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합원 권익향상이라는 명분으로 공포되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또 다른 권력으로 작용해 비조합원 직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혜정박물관측은 4월 1일 재차 김혜정 관장 명의의 ‘입장문’을 전체 부서에 이메일로 배포했다. 김혜정 관장은 ‘입장문’에서 노조의 성명서에 ‘본노를 감출 수 없다’며 본인의 24일 감사원 방문은 감사원측이 서류철을 ‘탈취’해 간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는 노조의 성명서는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관장은 입장서 말미에서 본인은 대학 설립자로부터 ‘특별추대’를 받았으며 ‘정책적인 추대가 행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김관장은 본인의 이런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경희대학교에서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관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입장문 내용과 유사하게 “사무실 항의방문은 감사행정원이 서류를 탈취해 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은 “직원 한 사람에 대해 한 것이 아니라 ‘감사행정원’에 대한 항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행정원의 부당 행위에 항의



국제캠 중앙도서관 4층에 위치한 혜정박물관과 노동조합 간의 성명서전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는 중에 흥분상태에서 거친 말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혜경 노동조합위원장은 “통상적으로 특정 부서를 상대로 항의를 할 때에는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한 항의는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정상적 감사업무 지연 박물관, 일방적인 문서 탈취

혜정박물관과 노동조합 사이 날선 성명서전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행정원측은 대학 정기감사를 위해 혜정박물관측을 상대로 2월 10일과 22일, 27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메일과 공문을 보내 감사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행정원이 혜정박물관에 요구했던 서류는 구입유물철이다. 이에 대해 박물관 측은 3월 2일자 회신 공문을 통해 ▲수장고를

관리하는 학예사의 미비 ▲유물 구입 건에 대한 부총장 결재 완료를 이유로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은 “학교에서 행정직원과 학예사 지원이 없어 인력부족 상태”라며 “혜정박물관에 있는 인원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출장에서 이관 조치했다. 감사규정 제2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13조(감사대상부서의 의무) ‘감사 대상 부서의 장과 소속 교·직원’은 감사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제출, 출석 및 답변을 하는 감사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감사행정원은 이관 과정이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행정원은 혜정박물관의 서류제출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행정원 조성인 계장은 “당시 요구했던 서류는 누구나 보고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부총장 혹은 총장 결재 서류도 모두 감사 범위”라며 유물구입 건이 부총장 결재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혜정박물관측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부서에 상대로 하는 대학 감사에서는 결재 수준에 상관없이 학교 조직에 편제되어 있는 한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감사 대상이다. 이를테면 부서 특성에 따라 감사에서 제외되는 ‘성역’은 없다는

의미다.

혜정박물관 측이 계속해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감사행정원은 혜정박물관을 직접 방문했고, 23일 두 번째로 방문한 자리에서 그간 요구해온 구입유물철 2권과 현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탁유물철 1권을 박물관 현장에서 이관 조치했다. 감사규정 제2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13조(감사대상부서의 의무) ‘감사 대상 부서의 장과 소속 교·직원’은 감사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제출, 출석 및 답변을 하는 감사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감사행정원은 이관 과정이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종이서류 이관 감사규정상 “적법한 절차”

감사행정원 조성인 계장은 “지금음 문서결재를 그룹웨어라는 전자 문서로 한다. 모든 문서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웹에서 관리되고, 감사부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요구한 문서는 그룹웨어 도입 전 ‘중이서류형 문서’였다. 때문에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를 감사하듯이 요청했을 뿐이다.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를 열람할 때 해당 부서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듯이) 부서장이 있을 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예의상,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부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행정원의 서류 이관 조치에 반발한 혜정박물관 측은 즉시 ‘이관서류 반환요청’을 했다. 양측은 이관 조치 다음날인 24일 박물관에서 자료 이관 결재 후 자료 개봉, 이관’을 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행정원은 다음날인 24일 합의안

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감사행정원 측은 “모든 부서에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서류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서류반환 요구에 응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이행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박물관, 가져간 서류 돌려 달라 감사원, 감사상 중요 서류 좀더 보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혜정 관장이 지난 3월 24일 감사행정원에서 떠나고, 당일 감사행정원 유영학 원장과 전 혜정박물관 학예사였던 오일환(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직접 박물관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관장은 “가져간 서류는 검토 후 1-2일 내에 반환하겠다고 감사행정원장이 직접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행정원 측은 “당시 유영학 원장의 말은 서류를 검토해보고, 별다른 필요성이 없으면 반환하겠다는 뜻”이었다며 “감사 상 중요 서류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좀더 보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행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원본 대조필이 된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박물관에 반환’하거나 ‘원본은 보관하되 사본을 반환’할 것을 박물관에 제안했지만, 아직 합의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박물관은 감사행정원에 기탁유물목록철 1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인소장물인 기탁유물은 학교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탁유물은 개인 소유이지만,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의미한다. 반면 감사행정원은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기탁유물도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감사행정원 조 계장은 “학교에 보관되는 이상 분실과 도난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탁유물에 대한 책임도 학교가 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에 대해 “기탁유물에 대해 학교가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은 자료임에 불구하고, 박물관 전시목적으로 가져다 둔 것”이라며 기탁유물목록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3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드러난 쟁점은 ▲감사행정원의 서류 이관 과정이 적법했는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해당부서가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가로 압축된다. 또한 ▲학교의 기관장이 행정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역시 직원 사회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쟁점의 해결 과정과는 별개로 감사행정원 측은 예정대로 감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감사행정원 조성인 계장은 “이런 사건이 불거졌다고 감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예정대로 감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2015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안내

1. 훈련대상 :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3,000여명)
2. 장소 : x3, 일정

훈 련 명	훈련일자	대	상
향방기본 훈련 (8시간)	4. 27(월)	교직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법학), 특수대학원(경영/공공/관광/교육/법무/언론정보/평화복지), 간호과학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음악대학, 자율전공학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호텔관광대학	
	4. 28(화)	경영대학, 무용학부, 문과대학, 미술대학, 생활과학대학	
	4. 30(목)	정경대학, 이과대학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휴대용 문자 1~2회,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사항으로 대신함.

4.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전철 :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3) 개인차량 : 약도참조

5. 참고사항
가. 간부 출신 7년차 이상, 병 출신 7~8년차, 당해년도 전역자는 미부와 나. 학과·학년 구분 없이 동시실시 및 성씨별(가나다 순) 학급편성 다.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오대, 바늘, 고무링)불량자 결석처리 라.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결석처리 마. 지각자 귀가조치—반드시 08시 50분까지 부대정문 도착 바. 교육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대 1일 수용인원, 버스대수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 절대불가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

- 사. 결석 및 지각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아. 훈련편성(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누락된 예비군은 연대본부로 전화 또는 방문요망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카. 2014년월 1일부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유예자) 학생훈련 제외, 병무청(동원), 지역 일반훈련 대상
타. 중식은 학교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부대에서 지급되는 예비군훈련비(교통비, 중식비)로 사용

6.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x 학생생활지원존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나.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예비군' 검색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폰번호로 반드시 수정

기획

누수·파손·갈라짐... 건물 노후화로 몸살 앓는 ‘국제캠’

국제캠퍼스 공간 개·보수 문제

이시은 기자 dttldms77@khu.ac.kr

【국제】 단과대학들이 건물 개·보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파손부터 갈라짐 현상 등 개·보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해빙 시기가 겹쳐 건물 누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건축된 공과대학 관·외국어대학관은 상황이 심각하다. 외국어대학관은 지난 1982년 완공된 이후 큰 규모의 리모델링이 한 차례도 없었다. 때문에 건물 내·외벽 부식 정도도 심각한 상태다.

외국어대학 행정실은 ‘건물 구조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노후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외국어대학 행정실 오상민 실장은 “지난달 26일 관리과에서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해 A동 기둥 하나의 내부 철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후된 건물의 문제점은 봄철 해빙기나, 장마철에 두드러진다. 3층과 4층의 강의실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이밖에도 건물 로비의 큰 균열이나 B동 연결통로의 벽 이격 등은 안전점검 결과와 별개로, 학생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변형진(한국어학 2013) 군은 “전체적으로 외국어대학 시설은 매우 낙후됐다”며 “학교 측에서 낙후된 시설을 보수해준다는 말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외국어대학은 지난해 개·보수 공사항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관리팀에 요청했으나 편성받지 못했다. 현재 별도 지원금액을 배정받은 상황이지만, 최우선으로 여름방학에 건물 내·외부 페인트 작업 정도만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금액 역시 실질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공과대학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2015시설 개·보수 예산 요청서’에 따르면 공과대학에서 요청한 공사 항목은 총 10가지다. 이중 절반 이상이 최소 3년 이상 반복적으로 요청됐던 항목이다. 공사항목은 방수, 시청각실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행정실에 매년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이다.



공과대학에서 요청한 공사 항목은 총 10가지다. 이중 절반 이상이 최소 3년 이상 반복적으로 요청했던 항목이다.

공과대학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나타나 는 방수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C동 옥상 전체와 A동 옥상 일부를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동 아리랑과 B,C동 4층 계단실, 실험실 등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화장실 문이 없어 내부가 훤히 보여 이용자에게 당혹감을 주는데다, 주변에 악취 또한 상당하다. 홍준호(원자력공학 2011) 군은 “여름에 건물 내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건물 자체가 오래돼 낡은 균열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행정실 이용석 계장은 “관리과에서 방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건물 옥상 표면의 타일 낙하문제와 같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즉각 대처해준다”며 “하지만 모든 개·보수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개·보수 수요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 공과대학·체육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상타일 보수공사, 지난해 전자정보대학에서 진행한 외벽 타일 공사와 같이 안

1,2 체육대학의 옥상 타일과 공과대학의 외벽은 안전문제로 우선 공사 중이다 3 공과대학 화장실은 별도의 문이 없어 악취가 공간 전체로 퍼지는 상황이다 4,5 외국어대학의 경우 내·외벽의 리모델링이 제대로 진행된 바 없지만, 올해도 페인트 작업만 이뤄질 예정이다

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자정보대학 행정실 박은규 계장은 “기존의 전자정보대학관 또한 외벽이 낡아 타일 낙하의 위험성이 있어 공사를 진행했다”며 “시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구관의 누수 현상이나 외벽 타일 보강공사 등은 관리과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관리과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우선 ‘안전’에 관련한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과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캠퍼스 건물들이 노후화됐고 원래 건물의 유지 및 개·보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추가예산을 요청해서라도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보수 예산 책정은 관리과에서 각 단과대학의 요청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평가한 뒤, 기획예산팀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하고 있다. 기획예산팀 정구승 팀장은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특성 상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단과대학에서 요청 사안을 받기는 하지만 대학본부의 입장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도 공과대학과 외국어대학의 요구사항은 ‘SPACE21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기획예산팀 박재성 계장은 “SPACE21 사업 등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을 생각해야 하는 예산심의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SPACE21 사업 자체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해당 단과대학의 구성원은 당장의 불편함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내해야 할 듯 하다.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안내

1.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is.khu.ac.kr)에서는 교원의 급여안내, 연구업적관리, 성적관리, 학생조회, 강의관리 등이 가능하고, 학생의 인터넷 유·무선망 신청, 예비군전입 신고, 시간표/수강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성적조회, 장학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 교육비 납입내역 조회, 학사일정 조회 등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스마트캠퍼스 앱 서비스

스마트 기기에서 대학의 주요 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제한 없이 안드로이드 및 IOS(애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로 검색해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시스템 서비스(웹/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에서는 종합시간표,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희망과목당기 등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수강신청 앱을 설치하면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으로 검색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4. 이메일 서비스

학생과 교직원에는 누구나 id@khu.ac.kr의 형태로 학교 메일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웹메일 서비스(https://mail.khu.ac.kr)를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상용 웹메일 서비스와 같은 방식의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퇴직 후에도 이메일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경희인의 일체감 확립 및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홈페이지 계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서버에서 계정을 발급받아 개인별 개별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급 기준은 부서 및 교수 용도의 업무용 계정과 학생용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6. 온라인 백신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교내 PC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7.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재학생과 교직원은 ‘캠퍼스 라이선스’가 체결된 공용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교육/행정용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수강생에게 메일·문자 보내기 서비스

교수 또는 강사는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메일과 문자를 단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9. IP Address 및 Domain Name 신청

교내 전산망에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P Address 및 Domain Name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인터넷 증명 발급

인터넷을 통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직이수증명서, 수료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각 건물에 설치된 증명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에 인터넷증명발급센터(http://kyunghee.certpia.com)에 접속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11. 캠퍼스 무선랜(KH-Wi-Fi)

교내 전 건물 및 주요 외부 공간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한 ID/Password로 접속 가능합니다.

12. 모바일 발송 통보서비스(경희 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전화의 SMS(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설문조사 시스템

행정부서/대학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의 경우, ‘대형 메일 및 설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출된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체계화된 분석도 가능합니다.

14. 소중한의견 서비스

‘소중한의견’ 서비스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의견이나 칭찬/불편사항에 대한 정보지원처와 사용자의 소통공간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소중한의견] 메뉴에서 메뉴별 의견등록이 가능합니다.

15. IT 콜센터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문의와 민원을 지원하기 위해 IT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Tel.02)961-0304,0521 | 국제캠퍼스 Tel.031)201-3171~3)

16. 기타

가.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등록 안내

각종 공지 및 긴급사항 연락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등록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개인정보][교직원은 [My KH-U]] - [개인정보변경] 메뉴에서 [E-mail]/[휴대폰] 항목에 각각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나.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사용 안내

최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되어 있으며, 처음 접속할 때 변경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린 경우 일의 패스워드로 변경되오니, [비밀번호찾기]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가 모두 변경되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IT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본인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드립니다.

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본교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행위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내에서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E-mail(it@khu.ac.kr) 또는 IT 콜센터(서울 02-961-0304,0521, 국제 031-201-3171~3)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대학 “개·보수 공사,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 관련회의 매달 1회 이상… 강의실 대여 5개 추가

정경대 낙후시설 논란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서울】 정경대학 측이 정경대학 학생회가 요구한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언론고시반 이전과 정경대학 공간대책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은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정경대학 노후공간과 낙후 기자재 관련 논의를 위해 마련된 면담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 자리에는 면담을 주재한 한군데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해 강제상 정경대학장, 정경대학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경대학 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정경대학은 빔 프로젝트 고장 등 때문에 수업 시간에 3번씩 조교를 부를 만큼 낙후돼있다”며 “무엇보다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인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공간개선 TFT가 마련한 5대 학생요

구안 중 언론고시반 이전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예산을 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경대학 행정실 윤제학 실장은 “5대 학생요구안 중 낙후시설 개·보수와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할 것을 약속하겠다”면서도 “언론고시반 문제는 이전 장소가 확정돼있지 않아, 당장의 예산 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고시반의 면학분위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의 끝판(학생회실) 만들기 이번달 안으로 공간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경대학 공간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이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학장, 행정실, 학생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매달 최소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대학본부도 포함된다. 정경대학 강제상 학장은 “학생대표와 함께 정경대학이 SPACE21사업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겠다. 매달 최소 1회 이상

논의 하겠다”며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되는 것들부터 고민하자”고 말했다.

한군데 부총장 역시 “정경대학이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학생수가 많고, 노후화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아직 단기대책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은 지난 1일부터 5개 강의실을 추가 대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정경대학 행정실에서 강의실 예약 현황표를 확인하고 당일에 서면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난 3월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개선TFT는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5가지 선정해 바 있다. 이 5대 요구안에는 ▲언론고시반 이전과 제2의 끝판(학생회실) 만들기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 ▲정경대 공간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있다. 이후 정경대학 학생회가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거듭 문제제기했고, 면담을 이어왔다.

▶1면에서 이어짐

이현호 교수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건축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성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문화복지시설은 경희의료원 방문객과 우리학교 구성원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쓰일 예정이다. ‘문화복지시설’ 건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암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된다. 경희의료원 총무팀측은 “우리 학교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화복지시설은 암 전문병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시설’ 건축은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내부 시설 공사가 끝나는 5월 1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축 건물의 전체 공간 사용은 GS리테일이 15년 장기 임대 형식으로 계약을 마쳤으며 내부에는 식음료업체와 편의점, 북카페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면플라자 완공과 함께 정문에서 교시탐에 이르는 중앙로가 기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정문 주변 차로 및 보행 동선이 효율적으

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복지시설 옆 보행로가 완성되면 현재 ‘임시’로 쓰이고 있는 보행로가 확장된 차로로 사용된다.

외부에서 대학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와 같이 1차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학에서 외부로 향하는 진출로는 현재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진출로는 정기관 소유 차량이 사용하며 현재의 마을버스 차선으로 우회하여 진출하게 된다. 기존 진출로는 정기관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에 지금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고 나가게 된다.

기존 진입차선 역시 현재의 차선폭에서 조금 넓어지면서 원활한 소통과 안전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문 인접도로의 동선과 차선이 변경되면서 출·퇴근 시간대의 병목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중 야간대학원 수업 종료 후 고질적으로 반복되던 정체 현상도 경희고등학교 방향 출입로의 24시간 개방 정책과 함께 그 정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격에 대한 반동, 시간이 흐른 뒤 제대로 평가할 것”

이현호 (홍익대 실내건축학)교수 / 문화복지시설 설계자



정문 인근에 건축 중인 문화복지시설(가칭)의 색과 디자인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지난 1일 대학주보 온라인을 통해 SPACE21사업 대표건축가이자 문화복지시설을 설계한 이현호 교수의 건축의도를 추가로 전달했지만, 여전히 색깔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반론이 계속됐다. 이에 지난 10일 이 교수를 다시 만났다. 그 역시도 “디자인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것에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반응은 ““파격에 대한 반동”이라며,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건축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가장 문제제기가 많은 ‘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반대 여론은 대체로 기존의 건물들이 화강색, 회색, 흰색을 사용하는 반면, 문화복지시설은 원색을 사용해 통일성을 해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건물들이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더욱 다채롭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왜 하필이면 노란색이냐는 질문에 이현호 교수는 “다른 색이면 어떨지 상상해보라”고 반문했다. “원래 붉은색 타일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의료원 건물인 까닭에 다른 색을 찾았다”며 “녹색을 사용하 아니면 나무들에 동화돼버릴 것 같았고, 파란색은 공장건물처럼 보일 것 같아 노란색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란



색은 재밌는 색이다. 붉에 보면 색이 튀어 돋보이지만, 여름의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는 그에 어울리고, 가을의 단풍에는 덜 돋보일 것이며, 겨울에는 튀지 않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색과 별개로 건축양식 역시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우선 통일성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많다. ‘너무 튀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캠퍼스의 경우 고전적 언어를 사용한 건물로 ‘본관’, ‘평화의 전당’, ‘중앙도서관’이 존재했다. 여기에 SPACE21 사업 건설이 완료되면 고전적 문법의 건물은 총 6개로 그 밀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SPACE21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 고전적 건물이 많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도시의 역사가 오래된 교토, 런던과 같은 도시는 한 번의 대규모 건설로 형성되지 않는다”며 “길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옛 건물과 신식 건물이 조화된다”고 말했다. 캠퍼스도 같은 맥락으로 교육의 공간으로 천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봐야하는 만큼, 고전적 건물과 미래지향적 건물이 조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른 색으로 칠해진 문화복지시설을 상상하면 노란색이 가장 무난하며 적합한 색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늘에서 건축물을 내려다 봤을 때 두 개의 직사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다.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반박하며, 오히려 “공간 효율은 높다”는 입장이다. “단지 단조로울 수 있는 건축물의 ‘루프라인(Roof Line)’을 사선으로 구성해 재미를 더했다”고 덧붙였다. 두 개의 개별 건물 사이에는 각각의 테라스가 생긴다. 테라스에서는 ‘평화의 전당’, ‘본관’ 등 학교 내부와 등용문 앞으로 펼쳐지는 학교 외부의 공간을 조망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이현호 교수는 “공간이 구성되면 학생들이 추억을 쌓을 아름다운 공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되는 문화복지시설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두 개의 직사각형이 마주보는 형상이 된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 2004~2007학년도 핵심교양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구)핵심교양과목의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현 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과학논작성법”
 - 면제기준 및 자격 (※기타 자세한 이수면제 기준은 첨부 ‘핵심교양 이수면제 기준표’ 참조)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료 계열별 TOEFL, TOEIC, TEPS, G-TELP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센터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나.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기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 신청기간 : 2015. 06. 01(월) ~ 06. 12(금) 17:00까지
 - 신청장소 : 휴머니티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증명서류 원본
 -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5~1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공학인증(ABEEK) 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휴머니티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 바람. (☎. 031-201-3401~5)

국제캠퍼스 휴머니티스칼리지

외국어강좌 안내

- 접수기간 :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5. 04. 06.(월) ~ 04. 21(화)
 - 추가 접수기간 : 04. 27(월) ~ 05. 08(금)

- Level Test
 - 영어회화 : 04. 22(수), 24(금)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4. 24(금) 17:15

강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7:45 ~ 08:45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18:00 ~ 18:30	프랑스어 초급 1	스페인어 초급 1	일본어 초급 1	중국어 초급 1	영어회화 1
19:20 ~ 19:30	프랑스어 초급 2	스페인어 초급 2	일본어 초급 2	중국어 초급 2	영어회화 2
20:00 ~ 20:50	프랑스어 초급 3	스페인어 초급 3	일본어 초급 3	중국어 초급 3	영어회화 3

Tel. 02) 961-0081~2 http://www.iej.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제6회 경희가족 바둑축제 안내

동문, 교직원,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급수별 시상하므로 낮은 급수도 적극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5월 9일(토)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1층

- 참가비 : 1만원(점심식사, 참가기념품 제공)

- 시상 : 우승, 준우승, 3위(상장 및 부상, 재학생은 장학금 1인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수여)

- 참석대상 : 경희대학교 동문 및 가족, 경희대학교 교직원, 경희의료원 직원

경희대학교, 남녀 중·고 경희초등학교 재학생(참가비 무료)

- 대회방법 : 조별 변형스위스리그, 총호선, 덤6집반(1대국의 사용시간은 1시간)

- 주관 : 경희대학교충동문화(www.khua.or.kr)

- 접수 : 충동문화 사무처 전화 02-744-8854~6

팩스 02-744-0067/ 이메일 khua2001@hanmail.net

※바둑축제에 참가하시고 모교의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시기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충동문화

‘프로슈머 르네상스’ 를 앞당기는 플랫폼

특별기고 - 플랫폼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플랫폼(Platform)은 원래 사람들이 쉽게 기차를 타고 내리게 만든 기차역 기능을 의미했다. 요즘은 플랫폼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이나 도구를 말하기도 한다.

하드웨어 플랫폼이란 표준 규격과 공정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제품의 브랜드는 다르지만 공정과 부품을 규격화해 같은 엔진과 부품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다양한 제품 구성이 가능하고 제품 개발 비용도 낮추는 동시에 품질도 높게 유지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컴퓨팅 플랫폼은 소프트웨어가 동작되는 하드웨어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체제 및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포함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말한다. 즉, 플랫폼이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공통 실행 환경을 의미한다. 개방형 네트워크 특징을 갖는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이 제공되고 있다.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이 동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 생태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인이 애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란 개념도 생겼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은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글 자체의 지도 서비스 플랫폼이 구글맵이다. 구

글의 강력한 검색 엔진과 더불어 구글맵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도이다. 구글은 다른 여러 분야의 사업자에게 그들의 비즈니스의 일부로 구글맵을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이러한 형태를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한다.

애플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혁신적으로 결합해 전혀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은 휴대폰을 위한 범용 운영체제가 없던 시절에 휴대폰용 운영체제를 만들어 컴퓨터 수준의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만들고 앱스토어를 만들어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앱스토어는 아이폰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의 프로슈머 생태계가 되었다. 앱스토어에서는 누구나 아이폰의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할 수도 있고 유용한 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애플은 이를 위한 운영정책과 지원조치를 갖추어 이 플랫폼을 통하여 애플의 모든 제품에 대한 생태계가 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모바일 기기 시장을 점유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애플의 성공 이후로 세계는 혁신적인 플랫폼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플랫폼과 비즈니스 플랫폼은 전통적인

분야와 융합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얻고 때로는 기존 산업을 뛰어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플랫폼은 단순히 공학의 영역만은 아니다. 소비심리학, 사회학, 경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창의적인 혁신을 이룬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앱스토어와 같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사고파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사고파는 플랫폼이 나올 전망이다. 기존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 최대 모바일통신 전시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구글은 아라(ARA)폰이라는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아라폰은 구글의 개방형 모듈러 스마트폰 플랫폼을 위한 파일럿 제품이다. 아라폰은 표준화된 모듈을 구성하고 레고 장난감과 같이 원하는 모듈을 선택하여 조합형으로 나만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는 아라폰의 프레임에 프로세서, 카메라, 스피커, 센서, 무선랜, 배터리 모듈 등 원하는 종류를 선택해 맞춤형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즐기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디스플레이 중에서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성능의 스피커를 선택하고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용량의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사양을 갖춘 개성이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구글은 앞으로 스마트폰 하드웨어 모듈을 사고파는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통신 하드웨어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들과 같은 개발자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제품의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고 수리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개성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모두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프로슈머 르네상스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유사한 패러다임으로서 3D 프린터의 활용이 의료 보조기와 같은 맞춤형 제작이 필수적인 분야에서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품의 제조가 공장에서 이루어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인이 제조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글의 개방형 모듈러 스마트폰 플랫폼이 성공한다면 기존 제조업체는 큰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하드웨어 모듈러 플랫폼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마당

신유준
(자율전공학 2015)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감수성과 사색을 즐기자

도서·출판업계는 늘 불황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 출판사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리던 얘기다. 중소 출판사뿐만 아니라 민음사나 교보문고와 같은 규모가 큰 업체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습지나 소설 단행본과 같은 ‘주류 상품’들이 아닌, 시집과 같은 ‘비주류 상품’들은 더더욱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당장 우리학교 주변의 한 서점만을 보아도, 시집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책장 두 줄이 고작인 상황이다.

사실 시집은 경제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책이다. 바쁜 현대인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것은 시집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SNS로 올라오는 ‘감성 글귀’들로 바뀐 지 오래다. 사람들이 시집을 찾지 않으니 ‘문학과 지성’이나 ‘창작과 비평’ 등과 같은 나름의 메이저 출판사들도 새로 시집을 내기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시집을 출판해봤자 창고에 재고만 쌓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출판사들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책을 낼 이유는 만무하다. 실제로 주변의 도서관을 찾아도 소설책을 읽는 사람은 종종 볼 수 있지만, 시집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를 읽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색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읽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빠름이 미학인 시대에, 한 숨 고르고 멈춰 서서 천천히 음미해야 하는 시는 어쩌면 이미 수명을 다한 문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생의 시기에 시를 읽는 것은 꼭 필요한 경험 중 하나다. 배움을 찾아 나가는 학생들에게 시만큼 효과적으로 사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은 없다. 시는 시인의 주관적인 언어로 씌여져 있다. 시를 읽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색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읽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시가고 대학의 마사 누스바움 교수는 저서 ‘시적 정의’에서 지금 사회의 공적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문학적 상상력이라 말한다. 문학이 주는 새로운 관점과 감수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집을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충분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바쁘데 한가하게 시집이나 뒤적거릴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며 푸념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 읽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대학로 앞을 보면 각종 카페들이 즐비해있다. 수 천원을 호가하는 브랜드 커피들이 매일 팔려나가는 모습은 서점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로 놓여있던 시집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도 좋지만, 비슷한 값이면 살 수 있는 시집 한 권이 주는 사색도 필요하다. 대학로 앞 대학생들의 손에 커피잔들 만큼이나 시집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1면에서 이어짐

광장은 타자성과 대중성이 발현되는 공공의 공간이고, 밀실이 개인성과 은밀성이 강조되는 사적 공간으로 규정되면서도, ‘외부우스의 띠’처럼 서로의 안과 밖이 연결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1973년판 서문에서는 《광장》이 ‘이데올로기와 사랑’이라는 심해의 숨은 바위에 걸려 다시는 떠오르지 않은 ‘이명준 잠수부’의 이야기라고 요약한다.

《광장》의 이야기는,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남북의 포로교환 때 납북이나 북쪽이 아니라 제3국행을 선택한 석방 포로 이명준이 해방과 분단, 전쟁을 살아낸 이야기로 요약된다. 작품 속에서 ‘광장’은 다층적으로 활용된다. 처음에는 남한이 ‘정치와 경제의 속물적 광장’으로 호출되면서 비판되고, 이후 ‘새로운 광장’의 모델로 ‘이북’이 선택되지만 곧바로 ‘잿빛 공화국의 광장’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남북에서 ‘이데올로기적 광장’의 모색이 좌절되고, 남쪽의 윤애와 북쪽의 은혜를 만나




《광장》의 작가 최인훈은 ‘광장’이 ‘운명을 만나는 자리’라고 재정의 했다

면서 ‘광장’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밀실형 광장’으로서 ‘원시의 작은 광장’으로 축소된다. 이어 ‘마지막 광장’이자 ‘삶의 광장’으로 변주되다가 ‘푸른 광장’으로서의 바다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광장’은 갈매기로 환유되는 은혜 모녀(은혜와 뱃속의 딸)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가 되어, “제 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으로 인식된다. 결국 남과 북만이 아니라 제3국행마저도 거부한 채 ‘푸른 광장’인 바다로 투신한 이명준의 자의적 실종은 ‘사랑의 광장’이라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의 상상적 탈주인 셈이 된다.




1960년산 《광장》은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광화문 광장의 유효성’으로 그 현재적 의미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구호하지 못한 끔찍한 현실이 ‘《광장》의 현재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제 정신으로 ‘광화문 광장의 노란 물결’을 ‘푸른 바다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1960년에 실종된 이명준은 2015년의 대한민국 호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의 광장’은 안녕하냐고. 그 눈부시게 푸른 광장인 ‘노란 바다’ 앞에서 ‘당신들의 사랑’은 어디로 실종되었느냐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아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묻고 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5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5.07.03~2015.07.30,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9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5.03.16~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내선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c.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문화

본관 앞 마당,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체

본관놀이, 누구나 넌?
대표작성 : 황경선 기자
인포그래픽 : 방누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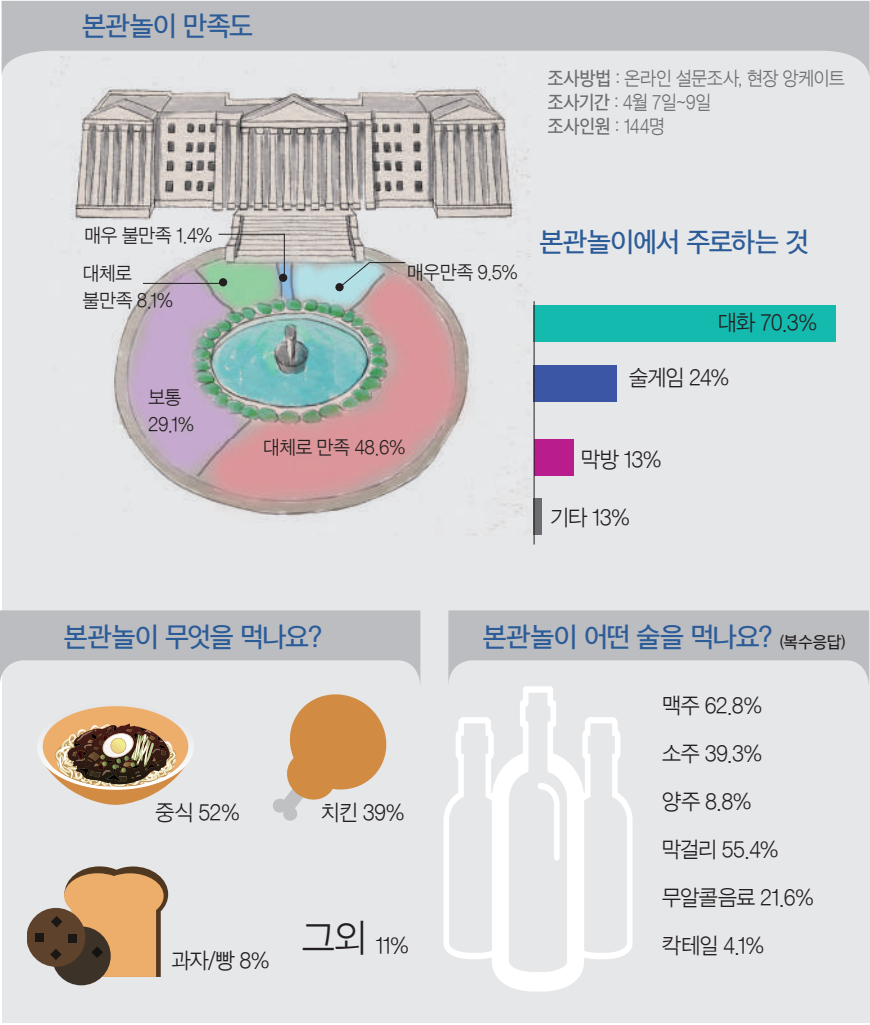
예년보다 쌀쌀한 4월이지만 ‘경희랜드’에는 어김없이 벚꽃이 만개했다. 매년 봄 개화시기 마다 본관 앞은 음식을 시켜먹고 사진을 찍는 등 ‘본관놀이’를 하는 학생들로 붐빈다. 할 일은 잠시 미뤄둔 채 저마다 본관 앞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즐기는 봄의 축제, 그 본관놀이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본관이 지어진 1958년 이후에 입학한 네 동문들의 이야기를 통해 본관놀이의 역사를 짚어봤다.

본관 앞 정원이 만들어 진 것은 1958년의 일이지만 이 당시부터 본관놀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무거웠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놀이 문화는 찾기 보기 힘들었다. 당시 본관 앞마당은 전교생이 모여 학원장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월례 조화’의 장소였고, 부당한 사회를 향해 시위를 하며 경찰들과 대립하는 장소였으며, 때로는 학생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학문의 장이었다. 50년 전의 본관은 지금과 다른 이유로 불렸던 것이다.

이랬던 본관 앞마당에 지금과 같은 본관놀이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아직 ‘본관놀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친구들끼리 둘러 앉아 짜장면을 먹었다는 점은 지금의 본관놀이와 유사했다. 날이 좋으면 너도나도 좋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려 애썼고 통기타를 치며 낭만을 즐겼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름다운 캠퍼스의 경관이 학생들을 이끌었던 것이다. 우리대학을 졸업한 최재구(영문학 1979) 교수는 “본관은 대학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라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관에서 비슷한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말했다.

본관 앞마당이 1970년대에 공적인 장소에서 학생들의 놀이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면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자유로운 대학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다. 그곳은 만남의 장소이자 학생들의 쉼터였다. 자판기 커피 한잔으로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 충분한 장소였고, 미팅을 할 때에도 좋은 장소였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본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이 되었다. 80년대 당시 재학했던 정권현(무역학 1987)동문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만큼 재학시절 본관 앞마당이 주는 상징성이 컸다”며 “대학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만큼 많은 스토리가 담겨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본관놀이는 잠시 자취를 감춘다.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대학생들이 본관에 모여 노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학생들 스스로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에 학업에 열중했던 것이다. 전제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공허한 본관만이 남아있었고 이러한 냉기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전후로 학생들은 다시 본관 앞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본관놀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도 이때때의 일이다. 본관은 다시 활발한 놀이공간으로 돌아왔다. 첨단 문명에 둘러 싸여 낭만이라고는 모르는 세대라지만, 여전히 본관 앞 잔디밭에 모여 통기타를 치고, 짜장면을 시켜먹는 모습은 7,80년대의 낭만적이던 풍경과 다를 바 없다.

본관 건립 50여년, 본관 앞의 풍경은 시대가 바뀌어가며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본관놀이’는 과거와 현재의 학생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관놀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랬듯 본관 앞마당을 채우는 학생들의 문화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대학생활의 좋은 추억으로 남길 기대한다.

안전문제 우려 ... 관리팀, “위험한 행동 자제해 달라”

본관놀이의 ‘그림자’
대표작성 : 이진우 기자

마냥 행복하고 밝기만할 것 같은 ‘본관놀이’의 이면에도 그림자가 있다. 본관놀이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즐거운 본관놀이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본관놀이의 어두운 면 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쓰레기’다. 본관놀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매년 제기돼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한껏 상기된 함성이 울리는 본관 주변을 둘러보면 날리는 전단지, 포장 비닐, 음식물 등이 방치돼 있다. 그래도 올해는 나아진 편이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쓰레기를 모아 한편에 쌓아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모아둔 쓰레기더미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잔디밭 한구석에 방치돼있다. 이처럼 즐거운 축제 이면에는 항상 쓰레기가 발생하고, 뒷정리는 항상 청소노동자들의 일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대체로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 청소노동자는 “어차피 우리 일이나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이 더 힘들거나 하지는 않다” 말했다. 그는 “올해는 학생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야간에는 청소가 어려워 쓰레기를 정리에 더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다른 청소노동자는 “전단지 때문에 쓰레기가 늘고, 오토바이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주변 상인들을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소음 문제’다. 업무 공간인 동시에 대학원 강의 장소인 ‘본관’부터 ‘중앙도서관’ 그리고 ‘생활과학대학’까지 본관의 소음 피해를 입는다. 대체로 대학교 고유의 문화니 ‘이해한다’는 의견이지만, 문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고시준비생들이 소음이 시작될 점심시간에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외부인들로 인한 소음도 적지 않다”며 “야유회 오신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등으로 인해 공부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즐거운 문화지만,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본관놀이’를 하는 학생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학생들은 배달을 통해 치킨, 중화요리 등을 주문해 먹는다. 이 때문에 ‘본관놀이’ 기간에는 스쿠터가 정문과 본관을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급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부’들은 빠른 속도로 운전한다. 교내 도로에서 이런 모습은 보행자




본관 앞 마당을 찾는 인파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

부들의 호객 행위, 구성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 ‘캠스’ 직원들의 주 업무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본관놀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캠스’ 직원들은 외주업체지만 ‘본관놀이’ 시기 등 대학본부의 요청에 따라 교내에 배치된다. 요즘엔 하루 6시간 씩 교대근무를 선다. ‘캠스’ 직원 조관우 씨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이라며 “올해도 몇 차례 돌발행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조 씨가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배달부들과의 갈등’이 가장 난감하다. 미관을 해치고 청소가 어려워져 전단지 배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본관놀이에 대해 “대학생 때만 즐길 수 있는 놀이”라며 “학생들이 지금처럼만 즐겨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경희대의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에서도 ‘본관놀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학생자치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다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수대 입수 방지 팻말’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경희인을 추천해주시시오.

‘웃는 사자’와 함께 활력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개교 66주년 기념 2015 경희 ‘웃는 사자상’ 공모 2015 KH Laughing Lion Award

■ 접수일시 : 2015년 4월 6일(월)~5월 4일(월)

■ 대상 : 경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부문 :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 · 체육

■ 시상인원 : 0 명

■ 시상내역 :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단,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추천방법 :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E-mail : pr@khu.ac.kr
- 양식 : 경희웃는사자상 추천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 추후공지

■ 문의 :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4